

6. 28 換率變更措置에 대한 檢討

韓一시멘트工業株式會社 顧問
李 文 宰

I. 問題提起

우리나라의 外換制度는 해방이후 허다한 변동을 경험하면서 1964년 5월 3일에 종래의 固定換率制度에서 오늘의 單一變動換率制度로 제정적 전환이 이룩되었다. 固定換率을 主要原則으로 하는 현행 IMF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諸條件의 불안정한 변동으로 公定換率과 實勢間의 乖離가 만성화되어 왔던 우리의 현실에서는 經濟的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기초에 國民經濟의 성장기반을 두려는 지극히 과감한 시도로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單一變動換率制度가 채택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換率은 單一變動換率制度가 갖는 自己機能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곧 환율은 경제적 指標나 基準에 의해서 보다는 정책적인 인위적 자의에 의해 조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그간의 과정은 外換制度에 허다한 문제점을 낳게 했다.

먼저 그것은 각종換率間의 乖離로 外換制度의 내용을 복잡하게 했고 이와 같은 각종換率間의 乖離는 換率을 둘러싼 이해를 복잡한 것으로 만들었다. 곧 輸出實効換率(公式換率+金融支援+內國稅減免+輸出用機資材關稅減免) > 實勢換率(1967年 平均公式換率 × $\frac{\text{우리나라의 都賣物價指數}}{\text{美國의 都賣物價指數}}$) > 輸入實効換率(公式換率+輸入關稅額) > 公式換率間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것은 수입을 촉진시키고 수출은 換率變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지원의 정도에 따라 밀바침되고 있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둘째로 각종 利害當事者間의 이해 대립 속에

서 정책적으로 조정되어 왔던 공식환율의 상승 폭은 國內都賣物價의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므로 양자간의 隔差는 확대되었고 이는 시일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수출을 불리하게 하고 수입을 유리하게 하여 國際收支惡化의 원인으로 되어왔다. 外換率의 변동에 대해 민감한 반응 즉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借款企業體와 輸出業界였다. 그리고 그간의 환율은 借款企業體의 元利償還負擔增加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억제되어왔다.

금반의 6.28 換率의 12.98%인상은 이와같은 배경속에서 한계에 이른 수출을 增大시키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措置였다. 換率의 調整基準은 정부에 의해 Parity 率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表 1> 換率引上內容 (단위: 원)

	引上 前 (71. 6. 26)	引上 後 (71. 6. 28)	調整 率
對顧客電信換賣渡率	328.90	371.60	12.98%
韓國銀行集中基準率	328.15	370.80	13.01%
對顧客電信換買入率	327.40	370.00	13.00%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정식에 의해 主要貿易 關聯國인 美·日의 都賣物價指數 및 交易量加重值과 우리나라의 都賣物價指數를 관련지은 것이다.

$$\left\{ \text{韓銀集中基準率}(1965\text{年平均}) \times \frac{\text{美國都賣物價指數}}{\text{우리나라의 都賣物價指數}} \right. \\ \left. \times \frac{\text{對美交易加重值}}{\text{對日交易加重值}} \right\} + \alpha$$

換率現實化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란은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輸出增大 및 輸入抑制가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을 것이냐에 귀결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개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검토를 갖고자 한다.

II. 換率引上의 효과와 展望

(1) 國際收支에 미치는 효과와 발전

6.28 조치의 목표는 南財務가 제시하고 있는 것 처럼 輸入抑制와 輸出促進에 의한 國際收支의 개선에 있다. 이에 대하여 각기 利害團體間에 상이한 반응과 견해차를 낳고는 있으나 물가의騰貴에 따른 효과의 대폭적 상쇄가 없는 한 輸出增進과 輸入抑制効果는 상당한 정도로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약간 구체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輸出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간단한 산술적 試算에 의한다면 먼저 금반의 換率 12.98%인상은 輸出業者에게 弗當 25 원의

추가소득을 얻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1970 년의 輸出構造가 지속된다는 가정 위에서 산출된 것이다 (表參照). 이와같은 간단한 試算은 금반의 換率引上이 個別輸出業者에게 追加所得을 一次產品輸出業者의 경우 43 원, 二次產品輸出業者의 경우 20 원을 보장하여 평균 25 원의 추가소득을 주게 되므로 輸出意慾을 증진시킬 것으로 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輸出業者의 輸出意慾은 국내에 있어서 供給能力과 해외에 있어서 輸入需要에 의해 밀바칠 될 때 구체적인 輸出額의 증대로 귀결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貿協이 과거 58~70 年間的 時系列데이터에 의해 산출한 換率引上效果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 따르면 輸出實効換率에 대한 工產品의 輸出彈力度는 1.03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곧 公定換率이 13%引上될 때 13%以上の 수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肯定的 반응에 대하여 否定的 반응이나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견해가 없는

<表 2>

換率引上에 따른 輸出業者의 追加所得

	一 次 產 品	二 次 產 品	平 均
輸 出 總 額 的 構 成	21.3%	78.7%	
外 貨 稼 得 率	100.0%	47.3%	58.5%
換 率 引 上 前 所 得	327×100=327원	327×47.3=155원	192원
換 率 引 上 後 所 得	370×100=370원	370×47.3=175원	217원
弗 當 追 加 所 得	43원	20원	25원

<表 3>

外貨稼得率과 輸入依存度

(單位: 百萬弗)

區 分	1 9 6 6	1 9 6 7	1 9 6 8	1 9 6 9	1 9 7 0	66-70
輸 出 額 (A)	250.3 (43.0)	320.2 (27.9)	455.4 (42.2)	622.5 (36.7)	835.2 (34.2)	(36.8)
輸 入 額 (B)	716.4 (54.6)	996.2 (39.1)	1,468.2 (47.7)	1,823.6 (24.2)	1,879.7 (3.1)	(33.7)
原 資 材 輸 入 額 (C)	101.1 (59.0)	35.2 (33.7)	212.9 (57.6)	297.1 (39.6)	386.3 (30.0)	(44.0)
構 成 比 C/B (%)	14.1	13.6	14.5	16.3	20.6	15.8
外 貨 稼 得 額 (A-C-D)	149.2	185.1	242.5	325.3	448.9	—
外 貨 稼 得 率 (%)	59.6	57.8	53.2	52.3	53.7	55.3
原 資 材 輸 入 依 存 度 (%)	40.4	42.2	46.8	47.7	46.3	44.7

資料: 財務部貿易統計年報

① 原資材輸入에는 保稅加工用 및 軍納用包含

② () 內數字는 對前年度增加率임

것은 아니다. 계량적 분석처럼 換率引上의 효과가 크게 주어 지지 않는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으면서 제시된다.

먼저 換率引上은 弗當 追加所得을 주지만 우리나라 輸出構造上 工產品이 70년의 83.6%에서 금년에는 86.1%로 점차 그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工產品의 대부분이 原資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년차적으로 그 輸入依存度가 높아지고 있음으로 既輸入在庫 消盡 이후에는 인상률만큼 원자재 對外依存度에 따라 資金負擔을 기업에 가중시켜 輸出伸張에 제동적 작용을 가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外貨稼得率은 農水産物 및 鑛産物을 제외한 工產品에서는 대체로 30% 내지 40% 내외에 있으므로 輸出의 大宗이면서도 外國原資材에 대한 輸入依存度가 높은 合板, 被服類, 「세타」, 電子製品 등에서는 原資材 國産化 및 國産原資材의 「코스트다운」 없이는 外換率의 인상은 실효가 크게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

非公式 추계에 의하면 外貨稼得率이 17% 이하의 품목은 換率引上에 의한 수출축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둘째로는 外換率引上조치에 따르는 輸出原資材 수입에 대한 金利引上등 補完조치가 輸出企業에 대한 자금부담의 증가를 가져와 輸出實効換率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서 주장된다.

정부는 6.28에 대한 補完措置에서 지금까지 年利 6%에 불과했던 輸入金融金利를 9%로 인상함으로써 50%나 늘린 결과가 되었으며 輸出用 原資材를 도입하는 데는 全體輸入額에 10%의 積立을 행하도록 했다. 이로부터 輸入金利上昇에 의한 부담가중과 10%의 輸入積立금을 월 4분의 市中私債로 借入 3개월 적립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12%의 金利負擔을 감안하면 종래의 公定換率 318 원에 間接支援額 106 원(政府側發表)을 합산한 實効換率 434 원은 417 원~419 원선으로 弗當 15~13 원이 낮아 진다고 주장되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 평균 3%선인 技術所得率(로스率)의 下向操作과 輸出入을 위한 外貨經費 증가(信用狀 등 “뱅크” 차지, 保險料, 船債, 通關料 등)는 수출에 대한 換率引上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요인들이다.

세째로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世界市場에 있어서 限界供給者的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출가격의 하락이 결과하는 輸入需要의 탄력성이 낮다는 데서 제시된다. 우리나라 輸出商品은 저급품으로서 해외시장에 있어서 限界需要를 충족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輸出價格의 하락은 해외에서의 수입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貿易 그가운데서도 輸出에 대한 換率引上의 효과는 一次商品의 경우를 계량적인 결과분석처럼 상당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되지만 工產品의 경우는 相殺的 요인이 허다한데서 그다지 큰 輸出促進要因으로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一次產品에 대한 국내 공급능력에 대한 제한이나 해외 수요의 증대에 대한 전망에서 주어지는 낮은 彈力性에 비추어 수출은 급격한 증대가 기대되지 않는다. 다만 國産原資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供給過剩인 土石製品이나 유리의 경우는 해외시장의 개척능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輸出増大가 기대될 수 있다고 고려된다.

② 輸入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수입에 대한 換率引上의 효과는 輸入商品價格의 등귀에 의한 輸入需要의 억제에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輸入構造와 그간의 輸入動向에 의하면 換率引上에 의한 輸入抑制效果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貿協이 1958~70년까지의 時系列「데이터」를 가지고 추계한 바에 의하면 機械類輸入의 換率에 대한 탄력도는 1.28, 中間財의 환율에 대한 탄력도는 0.81 정도이며 전체수입의 탄력도는 0.9로서 非彈力的이다. 이와같은 計量分析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면서도 제시된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原資材依存度는 66년의 40.4%, 67년 42.2%, 68년 46.8%, 69년 47.7%, 70년 46.3%에 이르러 1966년 이후 5개년간의 原資材輸入依存度는 평균 44.7%를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原資材輸入은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건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는 것은 中間財의 낮은 탄력도에 비추어서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輸入增加率은 그간에 鈍化 과정에 있었고 이와같은 둔화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한 소산이었으므로 換率引上이 다시 이를 축소할 수 있는 폭은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있다. 66년 이후 輸入增加率은 66년 54.6%, 67년 39.1%, 68년 47.7%, 69년 24.2%로 줄어 들었으며 70년도에는 전년도 對比 3.1%의 微增을 보여 지난 69년의 18億 2千 3百 60萬弗에 대비 5千 6百 10萬弗이 증가된 18億 7千 9百 70萬弗에 지나지 않았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輸入商品構造는 原木, 原油, 輸出原資材 등의 수입이 전체 輸入의 75%에 달하는 반면 輸入彈力性을 지니고 있다는 施設財, 消費財 등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換率引上에 따른 輸入抑制效果는 전체 輸入總額의 25%에 해당하는 선에서만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지난 70년도 實績 18億 7千 9百 70萬弗中 換率引上에 따른 수입억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부문은 4億 8千萬弗에 불과하며 이 부문에서도 輸入抑制彈力值은 5%에 지나지 않는다는 당국의 추계이고 보면 換率引上에 따른 輸入抑制效果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③ 貿易外收支

우리나라의 貿易外收支構造가 價格非彈力的이기 때문에 貿易外收支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貿易外受給構造를 보면 價格彈力的인 觀光受取의 비중이 매우 적는데 대해 價格非彈力的인 貿易附帶費와 資本去來附帶費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인상으로 인한 개선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資本收支

元利金償還負擔이 환율인상으로 증대되지만 이것은 國內원貨 부담의 증대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원貨償還負擔의 증대로 간접적인 借款導入의 억제효과가 기대되나 이것은 동시에 外資關聯企業의 償還負擔 완화나 元利金상환을 위한 새로운 外資導入 또는 轉換社債 등의 추가 資本導入의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상쇄되고 元利金償還을 위한 資本導入이 비생산적인데서 더욱 否定的 측면을 갖는다.

(2) 物價에 미치는 效果와 展望

6.28 換率引上조치의 성패는 국내물가의 안정여부에 있다. 왜냐하면 국내물가의 상승으로 換

率引上의 輸出促進效果가 상쇄될 때 그 의의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환율을 12.98%인상함에 따라 국내물가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經濟企劃院當局은 일차적으로 0.35%이고 6개월간의 時差를 두고 餘他商品에 파급되는 최종적인 상승효과를 1% 내외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財務部는 일차적으로 1.5%, 최종적으로는 3%로 보고 있다. 한편 韓銀은 產業關聯分析表에서 제측한 도매물가의 換率彈力性은 0.3(原料의 國產代替가 없는 경우) 따라서 都賣物價上昇率 = $0.3 \times 1.298 = 3.894(\%)$ 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 인용한 質協의 計測值와도 유사한 것이지만 이와같은 낙관론에는 허다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政府當局者들의 물가에의 파급추계는 도매물가지수에서 수입상품이 차지하는 웨이트 2.46에 의해 산정되고 있으나 都賣物價指數 작성에서 반영된 수입상품이란 최종完成品에 국한되어 있고 施設財 原資材 外穀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데서 제시된다.

1970년의 경우 GNP에서 수입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당국의 추계와는 달리 物價上昇의 파급정도는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借款업체의 元利金負擔가중은 동업체의 製品原價上昇을 결과하고 이것은 物價上昇壓力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세째로 환율인상이 결과하는 輸出增大 輸入鈍化는 국내적으로 금리인하와 차관업체에 대한 金融支援의 증대에 따른 流動性증가에 대응하는 물자의 부족으로 物價上昇에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째로는 경험적인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와같은 小幅的인 인상은 기대되지 않는다. 換率이 배로 올랐던 1964년의 都賣物價上昇率이 34.7%였고 1969년 11월 換率이 4.5%인상된 다음 6개월후에 都賣物價가 6%나 올랐던 경험적 사실은 바로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綜合安定化對策으로서 이에 맞서고 있다. 곧 總需要의 억제로서 통화량은 연간 20%, 總與信限度는 연중 24.4%의 增加範圍內에서 누르는 한편 財政金融의 안정 備蓄物資의 活用, 消費節約, 公正去來法의 제정 등

이러한 안전정책을 위한 교과서적인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기의 성과는 기대되지 않는다.

어떻든 금반의 6.28 조치는 정부당국의 낙관과는 달리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換率引上과 동시에 단행했던 金利引下는 總需要增加를 억제하기 위한 流動性 증가의 규제라는 물가안정정책과는 역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앞에 본 것처럼 그밖에 原資材輸入依存도가 높은 우리나라 産業構造와 借款企業의 元利金償還負擔의 가중 등으로 換率引上이 제품의 原價高를 가져오고 석유류 제품의 국제가격의 상승, 아직도 비현실적인 協定料金構造, 獨寡占 등 우리나라의 物價構造는 換率의 변동을 크게 增幅 과급시킬 수 있는 자기 매카니즘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3) 外資導入企業 및 外資導入에 미치는 波及 환율인상이 對外支拂比率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直接的으로 가장 큰 과급을 받는 것은 外資導入關係와 外資導入의 產物인 外資關聯企業이다. 外資導入 및 外資導入企業에 대한 과급에서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元利金償還負擔의 증가와 기업의 부실화, 元利金償還負擔의 彌縫의 인 해결을 위한 새 借款에 대한 導入需要의 증가, 借款企業體 제품의 가격인상 등이다.

먼저 借款業體의 元利金償還負擔의 증가와 부실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데 있다. 1971년 5월 말 현재 借款總額은 21億3千8百萬弗인데 이중 3億1千7百萬弗은 이미 상환되었고 債務殘額은 18億2千萬弗로 되어있다. 이 차관의 元貨換算額은 換率引上前 5千5百85億원이었으나 6.28以後 6千7百63億원으로 7百78億원이 늘어났다. 이 차관 가운데 民間企業에서 도입한 상업차관은 11億7千8百萬弗이므로 元利金償還負擔增加의 民間企業 부담증가는 5百3億원에 이르게 된다. 이밖에 借款外에도 外國銀行으로부터 들여온 Bank loan 7千5百萬弗과 2億6千5百萬弗에 달하는 延輸入信用 등이 있다. 借款元利金償還의 부담증가중 내년 3월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정부가 일반금융에 의해 지원한다고 하므로 負擔增加가 기업에 주는 重荷는 일시 지연되기는 하지만 중국적으로는 企業負擔

의 증가로 總태의 惰性이 지속된다면 外資關聯企業의 많은 부분에서 부실화를 결과할 가능성을 주게 된다.

앞으로 3次5個年計劃 기간중에 상환해야 할 元利金償還額은 72年 3億1千5百萬弗, 73年 3億4千7百萬弗, 74年 4億6百萬弗, 75年 4億8百萬弗, 76年 4億5千3百萬弗 등 5년간에 15億3千萬弗이나 되는바 이에 따르는 부담의 가중은 지극히 큰것으로 될것이다.

둘째로 이와같은 元利金償還부담의 가중은 外資關聯企業으로 하여금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대신에 다시 元利金償還을 위한 外資導入需要를 더욱 증대시키게 하고 때로는 조건이 더욱 불리한 轉換社債 등에 의한 起債로 기업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결과마저도 갖게할 가능성이 있다.

세째로 제시되는 것은 借款業體製品の 價格引上 政策이다. 앞에서 본것과 같은 부담증가는 Cost-push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內需用製品 또는 輸出製品の 價格引上壓力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나아가 물가 전반에 대하여 상승압력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輸出促進效果도 사실상 消滅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換率引上이 外資導入企業 및 外資導入 문제에 대하여 미치는 과급이 전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企業人의 적극적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換率引上은 반면에 借款導入의 억제효과 및 外資關聯企業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계기로도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차관업체가 輸出業體인 경우 이들 차관업체의 輸出은 다소간 촉진될 수도 있고 그들이 內需用品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競爭輸入品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그만큼 간접적으로 보호적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Ⅲ. 結 言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우리는 6.28 換率의 변경이 결과할 과급을 개괄적이거나 검토하였다. 전체적인 결론은 換率의 변경이 政府당국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서 제시된다. 換率變更이 효과적일수 없는 기본적인 요인은 그 첫째가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갖는 지나친 對外依存的 성격에 있다. 外資를 기축으

로한 그간의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을 심화시켰고 이것은 自給自足的인 것을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외관련을 갖는 國民經濟가 외국환율의 변경에서 기대할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장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칙적인 金利引下와 換率引上의 동시병행은 바로 이와같은 국민경제적 구체성의 반영이다.

둘째로 換率變更이 효과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번의 조치가 外壓에 의해 이루어

진데 있다. 따라서 外壓에 의한 조치는 시기의 선택이나 방법에 있어서 허다한 무리를 낳는 要因으로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것을 여건으로 하여 우리 이익에 합치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政府當局과 기업인 그리고 국민 일반이 하나가 되어 당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자들이 이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토대로 보다 나은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제시될 것을 바라코자 한다.

◀近着圖書▶

◎ Industrial World. Mar. 1971

1. Chemical industry reaches maturity
2. Finding substitutes for substitutes
3. Sulphur dioxide: the unwanted gas
4. In Japan, a 13% growth is a slowdown
5. Membraes: new tools for the process plant
6. Chloromethanes plant helps cut importers
7. Metal platers clean up their wastes
8. The other gas: synthetic natural gas
9. International guide to suppliers' of chemicals

◎ Industrial World Apr. 1971

1. SPECIAL REPORT: AIR POLLUTION
 - ① Clean air: new goal for industry
 - ② Auto pollution: the biggest challenge
 - ③ Japan to spend \$500 million
 - ④ Mexico rushes pollution control legislation
 - ⑤ For cleaner air, go to Australia
 - ⑥ India: low priority for clean air
 - ⑦ 300 to exhibit in Switzerland in June
 - ⑧ New product to control air pollution
2. Licensing boosts profits
3. In Brunei; gas turbines diesels
4. Why doesn't Richard want to be foreman?

◎ Modern Government & National Development. Mar. 1971

1. Fiscal reform: key economic growth
2. Farm productivity: two views
Brazil: determining land size limits in agrarian reform
Kenya: accelerating the pace of rural development
3. Education cast in a broader development role
4. The world environment

◎ The Indian Concrete Journal, Feb. 1971

1. Renovating the GOPURAM of the Srivilliputhur temple with concrete frames and Shafts, S. RADHAKRISHNAN
2. Precast concrete cellular units for roof and floor. V. K. MTAIN
3. The stripe method for reinforced concrete slabs. S. K. MALLICK
4. Distribution of stresses in multiple cylindrical shell with prestressed edge beams: 2, R. K. VAISH